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4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시며 우리의 비행사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동무들을 만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의 목적은 주체적인 항공군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우리의 항공군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새 세대 비행사들을 비롯한 전체 비행사들을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자는데 있다고 하시었다.

또한 조국의 평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비행사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수고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고 비행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전군의 장병들이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항공군강화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개최를 선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항공군강화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개최를 선언하시었다.

대회는 《비행사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길 조선인민군 륵군대장이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장령 김광혁, 군관들인 김철, 김훈, 리혜영, 김명철, 허용준, 주련옥, 허룡, 조세형, 김혁민, 한길, 김광남, 정주철, 최진혁과 유가족인 김혜영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었으며 대회휴식시간에 조국결사수호의 비상한 각오를 안고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우리 항공군이 걸어난 자랑스러운 로정을 다시금 돌이켜보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참가자들이 피땀을 흘려서 다진 맹세를 소중히 접수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론들에서 강조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14명 육탄용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은 제2, 제3의 길영조정신이라고, 이런 정신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14명 육탄용사들이 발휘한 정신을 당중앙은 높이 평가하며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정철주비행사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13명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만장에 선포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영웅칭호를 정철주비행사의 안해 김혜영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김철, 안성혁, 량정룡, 전상철, 김영철, 장영호, 조용철, 김철운, 한철호, 차영진, 정영남, 최창남, 조상기에게 직접 수여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웅한 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최고사령관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라

고 하시면서 항공군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항공군에서는 항상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들고 경사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모든 비행사들이 당과 혁명을 하늘길에서 보위한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구름속 천리, 불비속 만리도 뚫고 날으는 불굴의 붉은 매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대회는 노래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의 합창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4월 16일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은 서곡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으로 시작되었다.

공연 무대에 여성독창과 방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기악과 노래 《자나깨나 수령님을 생각합니다》, 녀

성2중창과 방창 《빛나라 통일봉》, 경음악 《백두의 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바이올린독주와 경음악 《매혹과 흥모》, 녀성독창 《내 삶의 보금자리》,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경음악과 노래연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3중창과 방창 《아름다운 비행구름》, 녀성중창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종목들이 오르고 언제나 비행사들과 함께 계시며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자 관람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에 눈물을 적시며 박수갈채를 터쳐었다.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원함》,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올라 공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공연은 종곡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7일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는 주체적인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항공군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과 그들의 안해들, 항공군의 부부비행사들, 녀성비행사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